

# 현 시장 재판결과 따라 선거판 요동 칠듯

## 나주시장

다수의 지역 정치세력들이 선거 때만 되면 한치의 양보도 없이 경쟁을 벌이는 곳 중 한 곳이다. 이에 따라 차기 나주시장 선거도 각 정치세력들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임성훈 시장이 올해 나주 미래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사건에 휘말리자 차기 시장을 노리는 민주당 소속의 후보자들이 5~6명이 등장해 향후 후보 경선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그동안 지역에서 바닥민심을 닦아온 안철수 신당 측 후보도 출사표를 던짐에 따라 경선 이후 본선에서도 볼만한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주당에선 임 시장에 맞서 강인규(59) 나주·화순지역위원회 나주 상임부의장과 김대동(67) 전 나주시장, 나도팔(60) 나주교진행재단 이사 등이 출마의 뜻을 밝히고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임 시장은 미래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중이긴 하지만, 현직 프리미엄과 함께 재판과정에서 무죄 입증을 자신하며 재선 의지를 강하게 비치고 있다.

### ■ 나주시장 출마예정자

정당	민주	민주	민주	의원수 신당	의원수 신당	민주	무소속
이름(나이)	강인규(59)	김대동(67)	나도팔(60)	이광형(59)	이기병(57)	임성훈(54)	홍석태(63)
주요경력	· 민주당지역위원장 · 나주군성 부의원장 · 전나주시의회의장 · 전나주시장	· 민주당지역위원장 · 광주·남성 상임위원장 · 전나주시장	· 민주당지역위원장 · 광주·남성 상임위원장 · 전나주시장	· 정책 네트워크 내일 · 정책 네트워크 내일 · 전나주시부시장	· 정책 네트워크 내일 · 정책 네트워크 내일 · 전나주시부시장	· 전나주시장 · 전경기도 벤처 협회장 · 전남도 건설방재국장	· 동아기술공사사장 · 전남도 건설방재국장

\* 후보는 아니다 순

## 민주후보 5~6명... 경선 치열 전망

## 신당후보들도 바닥 민심 훑기 활발

등을 거치며 지역 내 조직력이 탄탄하다는 게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그는 향후 농민이 잘사는 소상공인과 향토기업이 융성하는 나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김대동 전 시장도 최근 밭풀을 팔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 전 시장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나주혁신도시 건설과 나주 구도심 개발, 영산포 지역 물류 유통중심지 건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강하게 비치고 있다.

내세울 계획이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건설 지원단장을 지낸 나도팔 이사도 표밭을 다지기 위한 밭풀을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나 이사는 나주 미래 도시 발전상을 구상중이다. 그는 “나주를 바로 잡고, 새로운 나주를 세우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나주를 진정 사랑하고 섬기는 종으로 나주시민을 섬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철수 신당’ 측에서는 정책네트

워크 내일의 실행위원으로 인선된 재선의 이기병 전남도의원과 이광형 전나주시장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기병 의원은 재선 광역의원으로 겸증되고 준비된 일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소통과 화합의 대통합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과 문화·관광도시 건설, 친환경 농업도시 건설, 명문 교육도시 건설, 나주와 영산포 원도심 활성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부시장 출신 농부로 알려진 이광형 전나주시장도 각종 행사장 등을 돌며 얼굴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전 부시장은 재임시절 영산포 선창 정비 및 고수부지 활용을

위한 나주시민 의견 반영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그는 미래산단 합리적인 마무리, 혁신도시 성공적 안착 등을 지역발전 청사진으로 내놓고 있다.

아직 정당을 결정하지 않고 있지만, 홍석태 전나주시장도 출마의지를 굳히고 밤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흥전부시장도 ‘신당’ 측과 교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건설국장을 지낸 흥전부시장은 개발 전략을 갖춘 행정관료 이미지를 앞세워 혁신도시 마무리와 나주시민 화합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조직을 꾸려 이름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주=손영철기자 ycson@

## ■ 이슈&변수

## 기초長 공천제 폐지·신당 바람 관심

## 배기운 의원 대법 결과도 직접 영향

나주시장 선거는 재판 결과에 따라 요동을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산단 조성과정에서 배임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성훈 나주시장의 재판과 배기운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과에 따라 재편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단 임 시장의 재선 출마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임 시장의 재판 결과가 일정상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천제 폐지와 안철수 신당의 부상 여부도 중요 선거 포인트다.

정당공천제가 유지되면 상당수 임후보 예정자들은 민주당 공천장을 따내기 위해 차별화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반면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인사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 “현 군수 3선이냐” vs “安 신당이냐”

## 담양군수

차기 담양군수 선거는 민주당 팀과 ‘안철수 신당’ 측 후보들의 도전이 거세다.

최형식(59) 담양군수의 재선 도전에 맞서 ‘안철수 신당’의 깃발을 든 강성남(61) 바르게살기협의회 담양군 협의회장, 김영기(57) 용진종합건설 회장, 유창종(60) 전 담양부군수가 출마의지를 밝히고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신동호(57) 전남대교수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준비중이다.

민주당에선 최 군수가 현재까지는 독보적이다. 세 번째 군수자리에 도전하는 최 군수는 굵직한 민간 투자 사업 등 민선 5기 군정 전반에 걸쳐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하고, 700만 관광도시, 전원형 교육도시, 녹색 도시 건설 등 민선 5기 정책과 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미래의 담양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선 의지를 불

## 민주 텃밭... 현군수 단독후보

## 신당 3명·무소속 1명 도전장

태우고 있다. 최 군수는 지역의 ‘갈등과 분열’ ‘정책의 단절’이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다며 재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담양군청 지속가능 경영기획실장(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지난 2011년 명예퇴임한 강성남 회장은 담양군에서 근무한 경험을 강점으로 꼽고 있다.

최근 안철수 의원의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으로 선임된 뒤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

‘스마일 담양 플랜’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김 회장은 광주시로의 흡수통합이 아닌 담양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광주·담양 간 행정구역 변경과 ▲산업단지 및 관광레저단지, 농·특산품 단지 등을 통한 권역별 균형발전 ▲일자리 늘리기와 군민의 소득창출 ▲경작비 부담 및 농산물 판매보장을 통한 지역 농업발전 ▲복지분야 개선 등을 주요 공약으로 꼽고 있다

유전 부군수는 대역 군수후보 중 최고의 행정 경험을 가진 깨끗한 행정가임을 내세우며 담양 경제 활성화와 군민 소득 향상, 교육의 질을 높이는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을 펼쳐 ‘향후 10년 안에, 인구 10만, 전국 10대 부자군’이 되는 담양 중흥시대를 열어나

### ■ 담양군수 출마예정자

정당	안철수 신당	안철수 신당	무소속	안철수 신당	민주
이름(나이)	김성수(61)	김영기(57)	신동호(57)	유창종(50)	최형식(59)
주요경력	·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 · 담양군협의회 회장 · 전남도민 지역기관장 · 경영기획실장	· 광주·전남 새정치 · 광주·전남 대교수 · 전남대교수 · 광주·전남 대교수 · 대학 학장	· 토론회 상임대표 · 풍진동 풍진동 · 경영기획실장	· 광주·전남 대교수 · 전남대교수 · 광주·전남 대교수 · 대학 학장	· 담양군수 · 전민선 3기 · 담양군수

\* 후보는 아니다 순

수는 그동안 지역에서 ‘와신상당’하며 차기 군수직을 노려왔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전남도와 중앙정부 근무한 경력이 있는 유전 부군수는 지방과 중앙에서 풍부한 행정경험을 쌓아온 경험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유전 부군수는 대역 군수후보 중 최고의 행정 경험을 가진 깨끗한 행정가임을 내세우며 담양 경제 활성화와 군민 소득 향상, 교육의 질을 높이는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을 펼쳐 ‘향후 10년 안에, 인구 10만, 전국 10대 부자군’이 되는 담양 중흥시대를 열어나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신동호 전남대 교수는 대학 행정 및 교육, 농업, 축산, 수의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지역발전 위해 봉사하겠다는 뜻을 갖고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신 교수는 지역에서 초등과 중학교를 나왔으며, 3년 군대 생활과 해외파견 연구생활을 제외하고는 줄곧 지역에 거주하며 지역민과 함께 사회단체, 동창회, 친목단체 등 다양한 지역 활동을 활성하게 벌이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 이슈&변수

## 광주시-담양군 통합문제 최대쟁점

## 安 신당 후보들 단일화 여부도 관건

내년 담양군수 선거의 최대 쟁점은 광주시와 담양군 간 통합 문제로 보인다.

따라서 다자구도가 형성될 경우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최근 군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전이 될 것으로 보이며, 반면 1대1 구도를 만든다면 최 군수와 경쟁에서 승산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 ‘신당’ 측 후보들의 단일화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신당’ 측 후보들은 단일화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각자 자신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세를 키우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향후 선거과정에서 ‘신당’ 측 후보들이 어떤 단일화 명분과 가치를 앞세워 단일화에 성공할지, 또한 단일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민주당 후보는 최형식 군수 한 명

## 신축원룸

(전대·상대·농대 쪽문앞)

### 원투룸

14개를 ▶11개로 최고위치!

1층상가

(2~4층 원투쓰리룸)

### 등기완료

(전면대리석, 벽돌집)

보증금 3천 월435

(연 5천2백)

매가 5억9천

(용 1억3)

## 수완지구 상가

1층매매(17.5평)

3억5천

3층매매(85평)

3억2천

1층임대 (18평)

보3천 월130만

3층임대 (86평)

보3천 월190만

☎ 062) 527-7600

## 원룸전문(전대1분)

### ★전대 상대 농대1분★

• 룸11개(1층 상가) • 월수익 420만, 준공원료  
• 매가 5억9천(보증금 2000, 용 1억2천)

### ★전대 정문 1분★

• 룸18개(민실) • 월수익 600만  
• 매가 6억9천(보증금 2억, 용 1억2천)

### ★전대상대2분 용봉지구★

•